www.koreapolicenews.com

경찰연합신문

경찰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322호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주담대 변동·고정·전세 금리 모두 3%대로…1년3개월 만에 처음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약 1년 3개월 만에 처음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3%대로 내려왔다.

이처럼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거래까지 회복되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반대로 1년 5개월 만에 처음 앞 달보다 불어났다.

약 2년간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 흐름이 사실상 멈춘 셈인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너무 이른 '디레버리징 약화'가 금융·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3%대… 고정금리는 소폭 오름세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이다.

약 20일 전(5월 12일·연 4.090~6.821%)과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p) 더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120%p(3.560%→3.440%) 낮아진 데다 '상생 금융' 차원에서 각 은행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렸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3.800~6.669%)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의 하단도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채권) 금리가 낮아지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먼저 3%대로 내려왔고, 시장 금리와 예금 금리 하락이 뒤늦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에 반영되면서 변동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3%대에 진입했다.

A 은행의 내부 금리 추이를 보면 2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혼합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인데, 이런 현상은 2022년 2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의 경우 최근 시장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20일 전보다는 최저 수준이 0.240%p 높아진 상태다.

◇ 5대 은행 5월 가계대출 1천431억원↑… 주담대 6천935억원↑

이처럼 대출 금리가 3%대에서 안정되자, 그동안 높은 금리 탓에 계속 뒷걸음치던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5대은행 가계대출도 1년5개월 만에 다시 증가…사실상 디레버리징 '끝'

한은 "가계부채 많은데 디레버리징 약해지면 금융·거시경제 위험요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천122억원으로 4월(677조4천691억원)보다 1천431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3천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09조6천762억원)이 6천935억원 불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줄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에 따르면 앞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1천52조3천억원)의 경우 한 달 전보다 2조3천억원 많아 이미 4개월 만의 반전이 확인됐다.

5대 은행의 최근 추이로 미뤄 4월에 이어 5월에도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4월 가계대출 역시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2천억원 불었는데, 역시 5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 기조를 이어온 한은 입장에서는 이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와 가계대출을 지켜보는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 글에서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 등으로 2022년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장기간 큰 폭으로 누증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는데,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에 따라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화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 운용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김성윤 기자

어린이집도 '사실상 엔데믹'…"마스크 착용 강요 안돼"

아동 확진땐 '마스크 착용 권고 → 보호자와 귀가여부 상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도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깝게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에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원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만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의심증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상의해 귀가 조치 등을 협의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권고됐던 '1일 3회 이상 환기'는 '1일 1회 이상 환기'로 완화됐다.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1일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다만 새로운 지침은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이정민 기자

성김 "北 긴장고조 행위 대가있다…어떤 핵공격도 압도·단호대응"

성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부 미사일 발사와 다른 군사 활동을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대북 관여, 도발 억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김 특별대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불법적인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한 북한의 수사에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이런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억제에 대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력적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의 공약은 한국과 역내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는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에 더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도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이중용도 전투기, 핵무기를 역내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단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확대했다"면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언니냐는 말 들었어요
엄만데.

정릉동에 사시는 최명진님은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챙깁니다.

오늘, 시작하라

은퇴 후 걱정이 없도록 탄탄하게 준비한다.
미래를 생각, 든든하게 대비한다.
좋은음식으로 튼튼한 건강을 유지한다.
삼성생명 건강자산 을 시작한다.

당신의 건강자산, 오늘부터 시작
Let's 건강자산

건설노조, 주말에도 분신 간부 추모문화제…충돌없이 마무리

도심 곳곳 노동자·보수 단체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토요일인 3일에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분신으로 숨진 간부 고(故) 양회동씨 추모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6시30분께 시작된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는 오후 7시50분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며 주최 측 추산 약 400명, 경찰 추산 약 300명이 참가했다. 양씨의 아내를 비롯해 유가족 5명도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같은 자리에 양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공무집행방해로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전날 석방됐으며 민주노총은 이후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주최 촛불문화제에서 양회동 씨 친형 양회선 씨(가운데),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건설노조는 촛불문화제를 할 때마다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경찰과의 마찰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실제 행진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돌봄 한마당'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제42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시청역부터 명동, 숭례문을 도는 행진을 시작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로 빚어진 혼란을 언급하며 "경보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명예회복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종각역,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신세계백화점까지 행진했다.

/ 강희성 기자

'담배유해성분 공개' 법안 또 무산되나…기재부 반대 '암초'

기재부 "담배사업법이 중심돼야"…식약처 "담배사업법은 '산업발전' 목적"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3일 국회와 금연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 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는데,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복지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6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성분 등 담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정이 추진 중인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할하는데, 기재부가 소관 법률인 담배사업법을 내세우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공교롭게도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재위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분공개법안은 담배사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보류되고,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담배유해성분공개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제정안이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과 관련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 유해성 관리에 관한 것(법률)은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 정민재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또래 살해·유기한 정유정 송치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

부산지검,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 편성 "철저하게 수사"

경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2일 오전 정유정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살인 이유를 묻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의 신상 공개를 두고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취업준비생이던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정유정은 긴급체포 이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수법 등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래 여성을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한 정유정 씨가 2일 구속 송치된 가운데 무엇이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적인 성격의 정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범죄 관련 소설을 읽거나 방송 매체나 인터넷에서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봤다.

전문가들은 정씨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만의 세계에 심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봤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정씨에게 범죄 관련 소설이나 수사 프로그램은 본인의 주 의식 세계였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일반인에게 범죄 소설이나 프로그램은 취미로서 자신의 세계에서 부수적인 영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부산 간 이재명…"尹, 국민 명령 따라 日오염수 방류 항의해야"

민주,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정부 비판 여론 확산에 화력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교 "이런 작자 대통령 자격 있나 윤석열을 심판하자" 원색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이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5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말을 안 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의 대표 수산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이 건네는 전복과 개불 등 수산물을 시식하고 "안그래도 생물을 파는 게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횟집에서 광어회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어업인, 수산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시장 방문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자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 조성현 기자

3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유족인 임근단 여사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염원한 민주주의 이거더냐" 단체갈등에 발걸음돌린 오월어머니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는 3일 경찰에 가로막혀 참배하지 못하자 글썽이던 눈물을 흘렸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그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힌 아들을 보러 왔으나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를 반대하는 지역 사회, 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 벽에 부딪혀 발걸음을 돌렸다. 뒷걸음질 치는 도중에도 임 여사는 민주의문을 허망하게 바라봤고 "경철아, 묘비 한번 닦아주지 못하고 가는구나. 망월동에 누워있는 오월 영령께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임 여사는 이날 5·18 부상자회, 유공자회, 특전사동지회 회원 등 50여 명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었다.

참배에 앞서 동지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재차 구한다면 용서하겠다"며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동지회의 참배를 반대하는 지역 사회의 반발로 지난달 23일에 이어 참배 일정이 연거푸 무산됐다. 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참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군복을 벗고 사죄하러 왔음에도 반대하면 도대체 진정한 사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며 "참배를 막는 단체는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동지회의 참배를 거세게 반대했다. 참배 소식에 일찌감치 민주의문을 찾았고 '대국민공동선언으로 5·18 왜곡한 특전사 참배 반대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펼쳐 참배단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

이들은 5·18을 왜곡한 동지회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참배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다. / 진성훈 기자

트럼프, 北 WHO 이사국 선출에 "김정은 축하해"…당내서 빈축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으로부터 나라 되찾는 방법 아냐" 지적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김정은에 축하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2024년 대선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진 유력 주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Conggratulations to Kim Jung Un!)이라고 썼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면서 "조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살인마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작년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누르고 당내 공천을 받아 출마, 당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기간 김 위원장과 세차례 대좌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며 그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몇 안 되는 세계 지도자 중 하나였다.

김 위원장을 두고 "사랑에 빠졌다"고 언급하는 등 친밀함을 여러 차례 과시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 "당신이 여자를 만난다. 1초만에 일이 진행될지 아닐지 알 수 있다. 10분, 6주가 걸리지 않는다. 1초도 안 걸린다"고 회고한 적도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호주 등과 함께 새 집행이사국 10곳 중 하나로 선출됐다. 미국 측 대표는 해당 표결 직후 "새로운 이사국의 하나인 북한 정부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곽도영 기자

새벽에 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 실형

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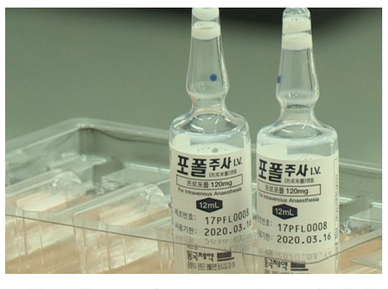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 손현수 기자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與 “뭘 가르치겠다고”

김기현 “김남국 의원 사퇴하고 민주당은 제명 협조해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

인사말 하는 김기현 대표

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 박민준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 결정’ 사실 아냐”

전현희 “명예훼손”

감사원은 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일부 언론은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주장해 왔다.

/ 최종민 기자

野 “우리가 발목잡아 尹지지율 낮다? 잡을 발목이라도 내놔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1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을 겨냥, “국정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실은 지적하는 손가락만 타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시험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친구 탓, 학교 탓을 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이러다 채점한 선생님까지 탓하겠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받은 낮은 점수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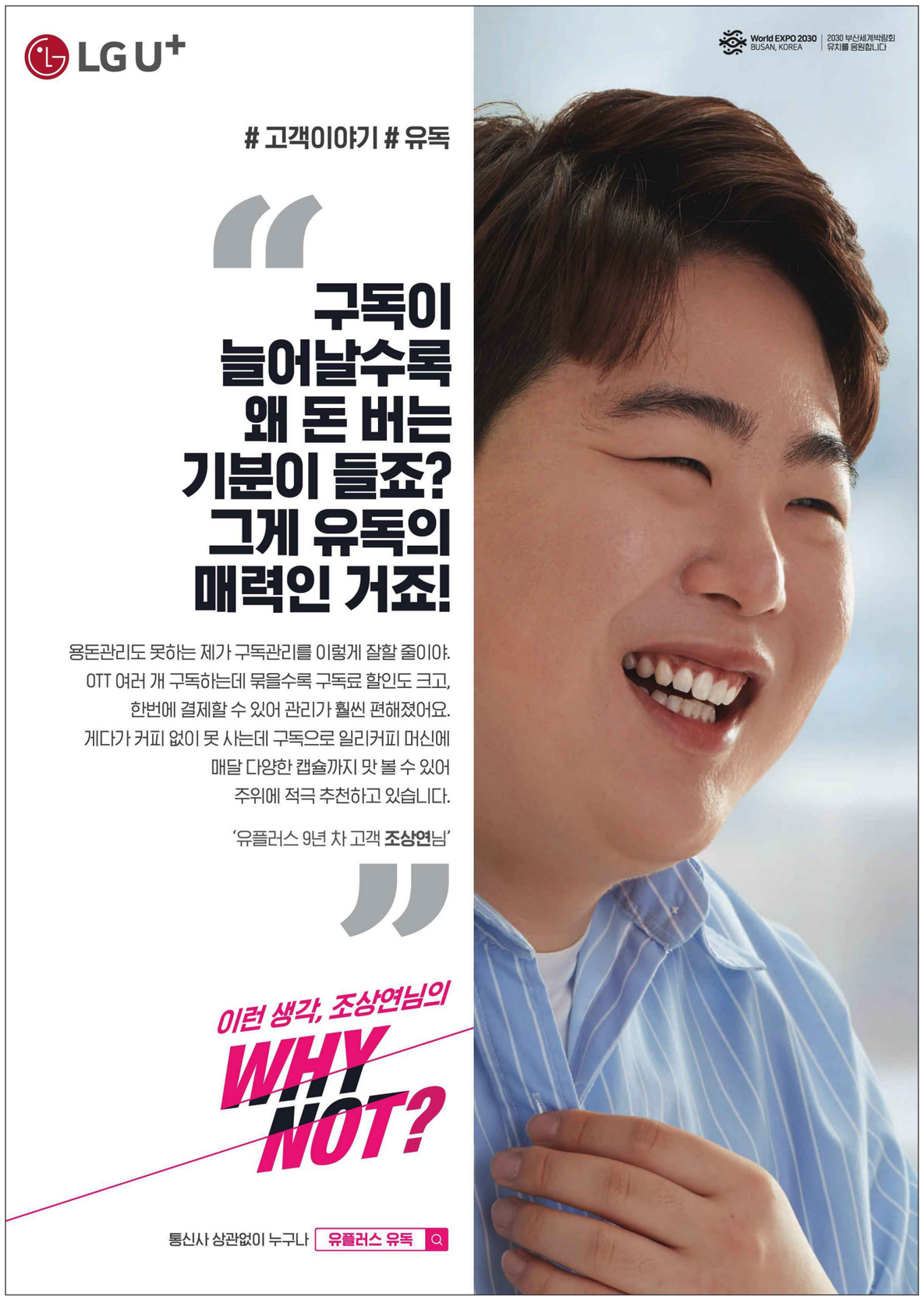
이어 “지난 1년간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골몰한 결과”라며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냉정하고 준엄한 국민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잡을 발목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야당이 잡든 말든 한다”며 “1년 내내 문재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정부를 탓하며 정적 제거 수사에만 골몰한 윤석열 정권 탓에 야당은 잡고 싶어도 잡을 발목이 없다”고 비꼬았다.

/ 양현승 기자



이재명, 법정서 유한기 문자 공개…‘거짓 언론플레이’ 등 언급

檢 “언제, 어디서 구했나” 李 “최근에…제보자 못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리 대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출처와 내용, 진위와 입수 시기, 방법을 말해줘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 문자를 확보한 게 아닌지 의심될 수 있으니 해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도 “너무 뜬금없는 사안으로 검찰이 요구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며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가 경위라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최근에”라며 입수 시점만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김 전 처장과 피고인과의 접점이 핵심으로, 쟁점에 집중해 달라”고 양측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2017년 3월7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님이 저한테 말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한 지 한 달 반…檢, 소환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3일 검찰에 자신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고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라고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은 염원을 담아”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힘내라’는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돈 봉투 의혹이 터지자 지난 4월 24일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귀국 약 1주 만인 지난달 2일 조사를 자청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 했으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돌려보낸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돈 봉투 사건 수혜자로 지목한 검찰의 수사가 ‘총선용 정치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역시 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송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송진영 기자

‘어깨빵’ 시비에 주먹질한 20대들 나란히 징역형 처벌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께 C(18)군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을 든 채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30분 뒤 같은 이유로 D(18)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난해 9월 춘천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주미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최해성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악의적 공격”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꾸짖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며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최창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헌화하는 대책위 피해자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 “특별법 사각지대 없애야”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뒤 잇따라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가 3일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고 숨진 피해자들을 기렸다.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숨진 2~3번째 희생자의 49제가 지난 2일과 오는 4일이다.

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4번째 희생자를 함께 기리기 위해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추모사,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 추모글 낭독, 헌화,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피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장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 신지호 기자

호기심에 들어선 오픈채팅방의 덫…‘몸캠 피싱’으로 1억원 뜯겨

지난 4월 중순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이용하는 메신저를 뒤적이던 중 한 오픈채팅방을 발견했다.

여성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제목의 채팅방. 호기심을 느낀 A씨는 덜컥 입장 버튼을 눌렀다. 불상의 채팅방 개설자는 A씨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자연스레 선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더니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했다.

A씨가 자신의 영상을 먼저 전송하자 개설자는 링크를 보내며 “내 영상을 보려면 이 링크를 눌러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는데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A씨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였다.

A씨가 파일을 깔자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모든 연락처가 순식간에 상대방 손아귀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범죄 수법이었다. A씨의 약점을 잡은 개설자는 태도를 180도 바꾸고 그를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도록 했다.

첫 번째 채팅방이 피해자 유인을 위해 개설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본격적인 협박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두 번째 채팅방 개설자는 “지정된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체 영상을 뿌리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냈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부르며 압박을 이어갔고 요구 액수는 어느덧 천만원 단위에 이르렀다.

협박은 A씨가 이날 하루 동안 30차례에 걸쳐 1억원가량을 송금한 뒤에야 끝이 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큰돈을 잃은 A씨는 이튿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 임승우 기자

인도서 열차 탈선 충돌 '최악 참사'…"사망자 최소 288명"

"수백명 객차 안에 갇혀…부상자 900명·사상자 더 늘어날 듯"

2일 인도 동부서 발생한 열차 충돌 관련 사고 현장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서 2일 오후(현지시간) 대규모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발생, 최소 28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열차의 객차 3량가량도 탈선했다.

충돌한 여객열차는 철로에 정차해있던 화물열차까지 덮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수단슈 사랑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AFP 통신에 "열차 3대가 연관된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철도 당국은 사고가 난 여객열차가 서부 벵갈루루에서 동북부 하우라로 가던 '하우라 슈퍼패스트 익스프레스'와 동북부 샬리마르에서 남부 첸나이로 가던 '코로만델 익스프레스'라고 밝혔다.

당국은 아직 수백명이 객차 안에 갇혀 있고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상자 수는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AFP에 말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200여대와 구조대원 1천200명이 투입된 상태다.

다만, 사상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인도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인도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에는 객차 여러 대가 구겨지듯 뒤틀려 쓰러져 있고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부서진 객차를 수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살아남은 일부 승객도 잔해 속에 갇힌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주변에 피와 부러진 팔다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한 남성 생존자는 "(충돌로 열차 내부 사람들이) 마구 얽혀 내 위로 10명에서 15명이 쌓였다. 나는 맨 아래 바닥에 깔렸다"며 "나는 손과 목을 다쳤지만, 열차에서 빠져나오자 주변에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BBC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연방 철도부 장관은 트윗에서 부바네스와르와 웨스트뱅골주 콜카타 등지에서 구조대를 보냈으며 국가재난대응군과 주 정부, 공군도 사고 수습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 버스회사들도 부상 승객 이송을 돕고 있으며 주민 수백명이 헌혈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으로 매일 1천200만명이 열차 1만4천대를 이용해 6만4천㎞를 이용할 정도지만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 송원기 기자

멕시코 한 계곡에서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거하는 요원들

멕시코서 콜센터 직원 7명 실종 "시신 가방 45개 발견"

멕시코에서 콜센터 직원 7명이 한꺼번에 실종됐다. 수사당국은 계곡에서 이들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가방 45개를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이날 할리스코주 경찰은 과달라하라 외곽에 있는 미라도르델보스케 계곡 인근에서 사람의 유해가 들어 있는 가방 45개를 수거했다.

일부 유해에서는 최근 실종된 콜센터 직원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이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총 몇구의 시신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할리스코주 검찰청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실종자 7명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받은 일련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신 일부가 포함된 가방을 발견했다"며 추가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신에 대한 유전자(DNA) 감식 작업과는 별도로 7명의 소재 파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24일 할리스코주 경찰에는 20~30대 남녀 7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처음엔 각각 별개의 신고로 다뤄졌지만,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이 모두 할리스코주 사포판에 있는 한 콜센터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규모 실종 사건으로 바뀌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100여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색 작전에 나선 끝에 시신 가방을 확인하게 됐다. 검경은 별도로 이번 사건 용의자와 그 범행 경위에 대한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개입된 실종 사건이 종종 보고된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만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태평양과 맞닿은 서부 할리스코주는 폭력적인 마약 카르텔 간 영역 다툼과 연관 있는 실종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악명 높은 전국구 갱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CJNG에서 떨어져 나온 누에바 플라자 등이 할리스코 주도인 과달라하라 등지를 거점으로 두고 있다. / 곽도훈 기자

일본 중부 지방에 하루 500㎜ '물폭탄'…1명 사망·2명 실종

태풍 영향 태평양 연안 큰비…도쿄~나고야 신칸센 정오 운행 재개

도카이도 신칸센 운행 중단

미국령 괌을 강타한 제2호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3일 오전까지 일본 각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아이치현에서 1명이 사망하고 와카야마현에서는 2명이 실종됐다. 고속열차인 신칸센과 일반 열차의 일부 노선은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일본 중부 시즈오카현 하마마쓰(浜松)시 구마(熊) 지역에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492.5㎜의 폭우가 쏟아졌다.

미에현 도바(鳥羽)시도 49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아이치현 도요하시(豊橋)시에는 419㎜의 비가 내렸다.

도쿄 도심에도 2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217.5㎜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열도 남쪽 해상에 진입한 태풍이 동진하면서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부터 시코쿠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가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 지역에 '토사재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즈 제도에 120㎜, 간토코신 지방에 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태풍은 오늘 중으로 온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천 범람과 산사태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도카이도 신칸센은 전날 오후부터 운행이 중단됐으나, 이날 정오께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야와 오사카를 오가는 신칸센은 1시간에 1대 정도만 운행되고 있다. 이바라키현, 지바현,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의 약 2천100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

/ 김유정 기자

北위성발사 안보리 회의 '빈손' 종료…중·러는 "한미 탓"

한미일 "실패했다고 침묵해선 안돼" 압박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예상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다수 안보리 결의의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번 발사 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경보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한 전례를 상기시켰다.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이라고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윤찬혁 기자

‘담배유해성분 공개’ 법안 또 무산되나…기재부 반대 ‘암초’

기재부 “담배사업법이 중심돼야”…식약처 “담배사업법은 ‘산업발전’ 목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3일 국회와 금연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 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는데,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새롭게 바뀐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담배판매점에서 판매중인 담뱃갑 모습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복지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이에 따라 담배유해성분 공개법안은 담배사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보류되고,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담배유해성분공개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제정안이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과 관련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장동혁(국민의힘) 위원은 지난달 16일 법사위에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 중심으로 입법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행안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법”이라며 “금연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식약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 유해성 관리에 관한 것(법률)은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한국이 지난 2005년에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9조(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 시험측정 및 규제)와 10조(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공개)에서 가입국에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EU),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은 이미 담배성분 함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담배 유해성 관리 관련 법률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보건 분야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6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성분 등 담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정이 추진 중인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할하는데, 기재부가 소관 법률인 담배사업법을 내세우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공교롭게도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재위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이경호 기자

이번주도 기름값 하락…휘발유, 2개월만에 1천500원대로

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최근 5주 연속 하락하며 약 2개월만에 1천500원대로 내려갔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5월 28일~6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내린 L(리터)당 1천599.0원으로 집계됐다. 약 2개월 만에 1천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9.9원 하락한 1천673.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8.6원 하락한 1천557.3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08.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69.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7.7원 내린 1천421.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와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달러 내린 배럴당 73.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5달러 내린 85.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7달러 내린 88.6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국제 유가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번 주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다음 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종민 기자

농가 일손부족 해결할까…창원시, 첫 드론 이용 벼 직파 시연

경남 창원시는 2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일대 10ha 규모에서 드론을 이용해 벼 직파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벼 직파 연시회에는 청년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논에 파종하는 기술이다.

4~5월 중 마른 논에 파종하는 ‘건답직파’ 방식과 5~6월의 젖은 논에 파종하는 ‘무논직파’ 방식, 볍씨를 드론으로 살포하는 ‘드론직파’ 방식 등이 있다.

농가에서는 최근 일손 부족과 농업생산비 증대 등으로 인해 드론직파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큰 실정이다.

드론직파는 기계이앙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면서도 노동시간 80% 이상 감소, 1ha당 생산비 최대 120만원 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또 기계이앙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산지와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드론직파를 하게 되면 파종 밀도가 높아져 쓰러짐(도복)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높아지는 인건비와 고령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드론 직파재배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현 기자

1천만원 초중반대 최고 인기 중고차는 ‘아반떼’

1천만원 후반대는 카니발·BMW 5시리즈 관심 높아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천만원 초·중반대 중고차는 현대 아반떼와 미니 컨트리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물 조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차 조회수 1위는 현대차 아반떼였다.

이어 기아[000270] 레이, 현대 스타렉스, 르노코리아 SM6, 현대 쏘나타 등이 뒤를 이었다.

아반떼는 현대차의 베스트셀링카로 연비가 좋고 유지관리에 부담이 없어 1천만원 초·중반대 중고차 중에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가장 높았다.

같은 가격대에서 수입차 조회수 1위는 미니 컨트리맨이었으며 폭스바겐 티구안, 벤츠 C클래스, 혼다 어코드, 아우디 A5 순이었다.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국산차 조회수 1위는 기아 카니발이 차지했고 기아 K7, 현대 투싼, 현대 제네시스, 기아 K3가 뒤를 이었다. 카니발은 대가족이 타기에 충분한 실내 공간과 캠핑 등 레저 활동에 특화된 차량으로 40대의 조회수가 압도적이었다.

같은 가격대의 수입차 조회수는 BMW 5시리즈가 1위였으며 BMW 3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BMW 1시리즈 순이었다.

2017 아반떼

성별로는 남성은 BMW 5시리즈, 여성은 BMW 3시리즈를 선호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1천만원 초·중반대 국산 중고차는 가격 대비 성능에 초점을 둔 경제적인 매물을 선호했고 1천만원 후반대 중고차는 주로 실내 공간을 고려한 모델들이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 최홍민 기자

SAMSUNG

이제 모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다채로운 패널로 키친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의 프리미엄을 완성시켜 주는
예를 들면, 비스포크처럼

BESPOKE 식기세척기

12가지 컬러, 4가지 소재의 맞춤패널로
더 돋보이는 나만의 키친
| 키친핏 빌트인 |

공간에 스며드는 트루 빌트인 디자인과
직관적인 플로어 디스플레이의 편리미엄
| 트루 빌트인 |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지금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을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 행사 기간 : 2023. 03. 21(화) ~ 2023. 05. 31(수)
가전을 나답게.

‘동료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회…이번에는 갑질·폭언 논란

논란 시의원 “주동이 발언 한 적 없다…입을 꿰매겠다고는 했다”

최근 동료 시의원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이 지난 4월 해외연수 중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혜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4월 해외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과 공무원 2명은 4월 5~11일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위원장은 (해외) 연수 기간 내내 여행사로 인해 불평불만을 했고 일행들을 계속 불편하게 했다”며 “함께 간 공무원들이 식사 중인데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의전 문제로 혼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도 ‘여행 가방을 왜 의원들이 들어야 하느냐’며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가방을 공무원들에게 들도록 하는 등 갑질로 여겨질 행동을 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급기야 연수 마지막 날에는 (임 위원장이)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했다”며 “누구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수 중에 있었던 일을 발설하기만 하면 주둥이를 쫙 찢어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위원장은) 연수를 함께 다녀온 공무원들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임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박 시의원이 주장한 폭언과 관련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동할 때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을 들라고 한 적 없고 의정 문제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 시의원이 말씀해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의회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다”며 “다녀와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통화도 했고 ‘연수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도 했다”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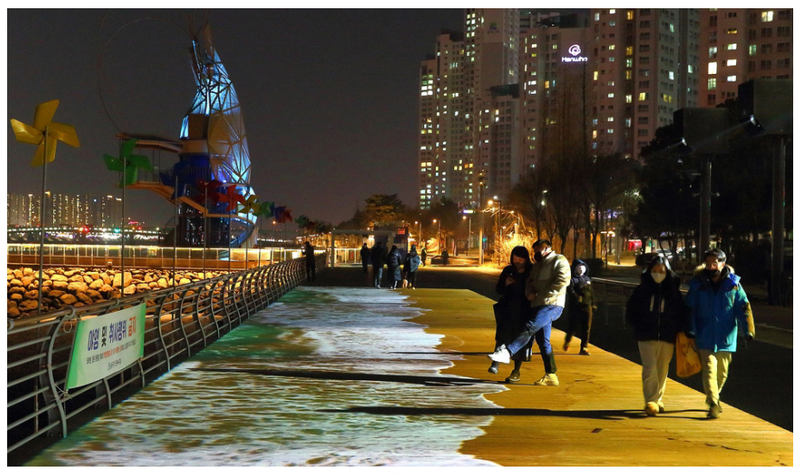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의원이 주장하는 ‘주둥이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해외연수 일정과 관련해) 모든 잘못을 위원장한테만 돌리면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 다른 의원이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2번째 표적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의회에서 돌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의회에서는 지난달 국내 의정 연수 기간에 민주당 소속 남성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로 번지자 남성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지난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 배영민 기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야간 조명

잦은 고장에 고의 훼손까지 흔들리는 ‘빛의 도시’ 인천

‘빛의 도시’를 주제로 야경 조성 사업이 활발한 인천에서 장비 운용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소래포구 수변을 따라 해오름광장 50m 구간에 설치된 빔프로젝터 조명 6대가 작동을 멈췄다.

남동구는 긴급 복구 작업을 거쳐 재점등을 완료했으나 명확한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바닥에 조명을 비춰 바닷길을 표현한 이 보도 구간은 지난 4~5월에도 20일 넘게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조명을 제어하는 통신선 30여개 중 상당수가 훼손돼 조명 송출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는 케이블 절단면 형태를 고려할 때 고의 훼손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2주 치 분량의 영상을 제출받아 용의자 파악에 나섰다. 설치한 지 2년도 채 안 된 장비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논현동에 사는 신모씨는 “한두푼 들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은 거냐”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야간경관 계획에 발맞춰 야경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게는 수십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고가의 조명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 탓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화수부두에 조성해 동구에 넘긴 조명 시설은 수개월간 일부 장비에서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장 등에서 나온 먼지가 빔프로젝터 내부에 쌓이며 오작동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공장 먼지와 염분을 머금은 해풍이 외부에 설치된 조명 시설에 지장을 준 것 같다”며 “기존 조명 장비에 보조 환풍 장치를 추가로 달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 박혜영 기자

고양시 “GTX 공사 구간 지반침하…복구 중”

경기 고양시는 사흘 전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A노선 킨텍스 사거리 공사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응급 복구에 이어 보강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3시 40분께 일산서구 대화동 GTX-A노선 2공구 킨텍스 사거리 왕복 8차로 중 서울 방향 2개 차로에서 길이 6m, 폭 4m, 깊이 0.25m 크기로 땅이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주변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양시와 시공사는 사고 직후 안전 조치에 나섰으며 당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어 대합실 구간 지하 15m 굴착공사 중 지반이 약해져 우수 박스 이음부가 떨어지고 오수관이 파손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반조사 레이더(GPR)·지반보강 공법을 적용해 추가 침하를 막겠다”고 말했다. / 강석규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노선 2공구 킨텍스 사거리 왕복 8차로 중 서울 방향 2개 차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남양주시청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경기 남양주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가로 11m, 세로 3m 크기의 디지털 월로 조성됐으며 기부자 헌액판, 사진, 기부 철학·내용, 현장 기부,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1억원 이상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나눔 명문기업, 평생 기부 등 고액 기부자 39명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액 기부자 약 2만960명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 8기 들어 28명이 고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남양주시는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키오스크와 단말기를 설치해 누구나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광덕 시장은 “고액 기부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 자원봉사 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눔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후원금은 어려운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선주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다.

서울광장 불허된 퀴어축제, 도심 다른 장소 개최 추진

7월1일 축제 위해 서울경찰청 등에 집회 신고…“7일 장소 등 공개”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의 불허로 올해 서울광장을 못 쓰게 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서울 도심의 다른 장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추진한다.

조직위는 7월1일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했지만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됐다고 해서 형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매년 하던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축제 참가자를 13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관련 소식도 있어서 더 많은 참가자가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시기를 제외하면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달 3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초 시민위는 6월30일~7월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CTS 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순위인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에 해당한다고 시민위는 판단했다.

/ 황수진 기자

“부산항 1부두 원형 보존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하자”

경성대 강동진 교수, 원도심 마켓·스케이트장·요가장 등 제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1부두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이나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가 지난 1일 부산 근현대역사관에서 열린 ‘부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 협력사업 학술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6·25전쟁 때의 피란 수도 유산 중 부산항 1부두를 포함한 9개 유산을 선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전절차로 부산항 1부두를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지만, 관할 중구가 8개월째 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중구는 부산시가 문화재 등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교수가 부두를 보전하고 열린 공간으로 두면서도 다양한 상상력을 활용해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강 교수는 공원으로 활용되는 뉴욕 브루클린 부두나, 도시 조망점 역할을 하는 시드니 브레들러스 헤드, 일본이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복원 보존한 부두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 “1부두의 열린 공간에서 이탈리아 토리노의 ‘파르코 도라’처럼 ‘원도심 축제 마켓’을 열 수도 있고, 빛 축제장, 캠핑장, 일출과 함께하는 요가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부산항 불꽃축제의 최고 조망점이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오픈 광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드니 브레들러스 헤드처럼 ‘오픈 웨딩’의 공간으로 쓰거나, 일본 요코하마 MM21처럼 1부두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면서 “원형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도 1부두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부두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부두의 역사성을 더 드러내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1부두 콘크리트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 철로를 복원하고, 192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1부두 계선주 7개를 역사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항을 기억하는 핵심 시설로 연안여객터미널을 부산항아카이빙 센터로 활용하고 ‘부산항문화재단’ 등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2013년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부산항 1부두 보전을 위해 정해진 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위대한 결단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내륙이 만나는 첫 접점인 부두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강성현 기자

연산호 사이의 황붉돔

천연기념물 제주 연산호 보존 대책 추진…훼손 경위도 조사

제주도, 연산호군락 보존·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실시

해양 환경 변화와 인위적 요인 등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주 연산호군락을 체계적인 보존 ·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해역의 외래종 개체군 증가 등으로 인한 연산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산호군락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한 산호류 폐사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귀포시 대포동 등 서귀포 해역 중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문화재구역 등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잠수를 통해 문화재구역 내 산호류 등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유형,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다.

특히 관광잠수함 운항, 해루질, 낚시, 해양 쓰레기 등 인위적인 이유에 의한 연산호군락 훼손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은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역은 서귀포 해역 7천41만㎡와 송악산 해역 2천223만㎡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8일 도의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열어 “문섬 일대 해역을 조사한 결과 잠수함 운항에 따른 암반 훼손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훼손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해송과 긴가지해송을 포함해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측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등 법정보호종 9종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박혜진 기자

농가 일손부족 해결할까…창원시, 첫 드론 이용 벼 직파 시연

경남 창원시는 2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일대 10ha 규모에서 드론을 이용해 벼 직파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벼 직파 연시회에는 청년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논에 파종하는 기술이다.

4~5월 중 마른 논에 파종하는 ‘건답직파’ 방식과 5~6월의 젖은 논에 파종하는 ‘무논직파’ 방식, 볍씨를 드론으로 살포하는 ‘드론직파’ 방식 등이 있다.

농가에서는 최근 일손 부족과 농업 생산비 증대 등으로 인해 드론직파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큰 실정이다.

드론직파는 기계이앙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면서도 노동시간 80% 이상 감소, 1ha당 생산비 최대 120만원 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또 기계이앙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산지와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드론직파를 하게 되면 파종 밀도가 높아져 쓰러짐(도복)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높아지는 인건비와 고령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드론 직파재배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론 이용한 벼 직파 시연

/ 서정민 기자

울산 일산·진하해수욕장 7월 1일 개장…축제 등 볼거리 풍성

오는 7월 1일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한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진 7월 1일에 개장해 8월 27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

일산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과 패들보드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 동구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경과 주파수 공유가 가능한 무전기를 새로 마련했다.

해파리 쏘임 피해로부터 피서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장 전 해파리 피해 방지 그물망도 미리 설치할 예정이다.

바가지 상혼 대책으로는 불공정 상행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 관계자 등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숙박업소·식당 등지에서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이용료 징수, 가격표 미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7월 중에는 바가지요금과 불법·불건전 상행위 근절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운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 파라솔,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엔데믹 후 첫 여름 피서객 급증에 대비해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 순환버스 대수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한다.

군청과 경찰, 해경, 소방 등이 포함되는 해수욕장 운영 인력도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산해수욕장

/ 손현수 기자

불법으로 잡은 고래 1.4t 운반한 3명 체포, 포획·유통책 추적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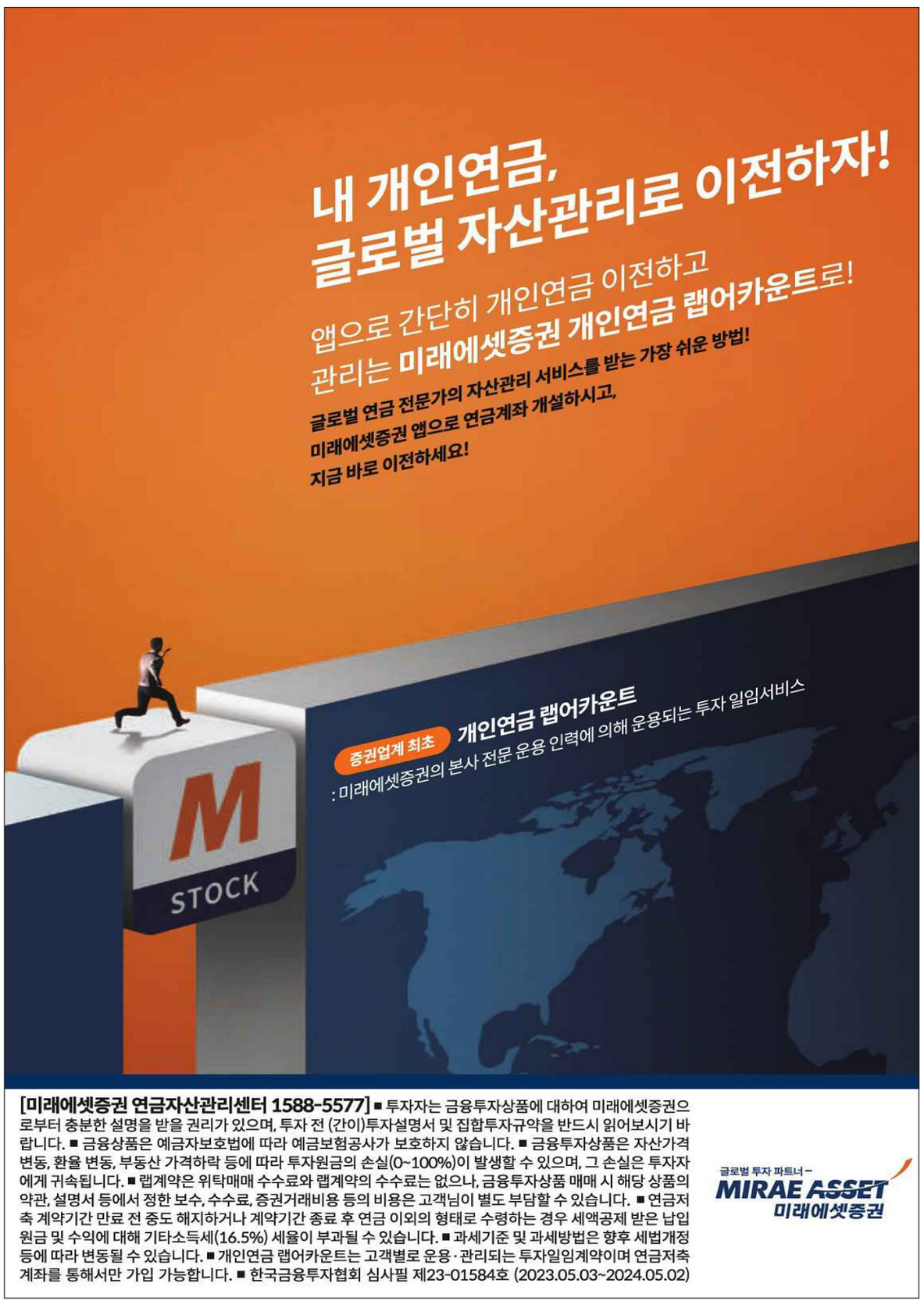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포획 고래

/ 채동현 기자



‘특전사 참배’ 두고 5·18 단체-지역사회 갈등 표출

3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일부 5·18 단체가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전사동지회의 ‘5·18 사죄 행보’를 두고 갈라진 5·18 일부 단체와 지역사회 간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됐다.

5·18 부상자회, 유공자회, 특전사동지회는 3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을 찾아왔다.

특전사동지회 5·18 민주묘지 참배 못하고 돌아가

그러나 이들의 참배를 반대하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민주의문을 가로막았다.

대책위는 “진실 고백 없는 사죄는 보여주기 쇼”라거나 “가해자 사과 없는 피해자의 용서가 웬 말이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의 참배를 반대했다.

이들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의 ‘인간벽’이 세워졌다.

5·18 단체와 특전사동지회 일부는 “참배를 막지 말라”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고(故) 김경철 열사 어머니 임근단 여사도 “참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임 여사와 양아들 관계인 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대책위를 향해 여러 차례 절을 하며 참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특전사동지회는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앞서 5·18 단체와 특전사동지회원 50여명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에서 임 여사와 함께 참배 행사를 가졌다.

5·18 유공자 명패 앞에서 묵념한 임 고문은 특전사동지회를 대신해 “사죄하려는 회원들을 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현욱 기자

6.25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

진안군,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 채취

전북 진안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을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 유가족이면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 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피부 표면을 채취하면 된다.

송미경 군 보건소장은 “유가족의 유전자 채취 참여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유정 기자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조직개편에 직원 의견 수렴해야”

광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직개편을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교섭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 육성·교육정책 전환·군 공항 이전 추진에 초점을 맞춰 본청 조직을 15 실·국·본부, 72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깜깜이 개편에 항의하고 대안으로 노동조합 주관 3개 본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 개편안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제안했으나, 다음날 밤늦게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이어 “시청 내부 게시판에는 조직개편 관련 직원들의 불만의 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조회수가 4천건을 넘고, 조합원 56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95.1%가 ‘조직개편 시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청 공무원노조는 “광주시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조합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기획조정실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 “지난달 3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본청 실국장 및 3급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같은 달 10일에도 3급 사업본부장, 서무부장, 서무과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 정민혁 기자

영동군 거미줄 전깃줄 없앤다…황간면 등 2곳 지중화

충북 영동군의 길거리를 어지럽히던 전깃줄이 사라진다.

영동군은 1일 한전 영동지사와 황간면 사무소 부근 등 2곳의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 협약을 했다.

사업구간은 황간면(황간초교~황간면 사무소, 금상교~신흥교) 1.6㎞와 영동읍 부용로(영동1교~산업과학고~부용초) 1㎞다.

모두 84억원이 투입되는 데, 이 중 16억 9천만원은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설계를 거쳐 2026년 6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동군은 2013년 이후 영동읍 시가지 6개 구간(연장 길이 5.05㎞)의 전선 지중화를 마쳤고, 전통시장 주변 0.7㎞와 영동천로 0.8㎞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영철 군수는 “그동안 영동읍에서 이뤄지던 전선 지중화 사업을 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신종수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에 세계최고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신약 개발 혁신 선도할 것”

사업 계획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청주 오송에 조성할 ‘K-바이오 스퀘어’를 중심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신약 개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오송을 산·학·연·병이 집적화된 글로벌 클로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바이오 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 스퀘어에서 착안했다.

정부와 도는 이곳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혼합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의 한국형 켄달 스퀘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에 창업 입주공간과 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구심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된 이래 최대 성과”라고 평가한 뒤 “정부·청주시·카이스트와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승현 기자

만취해 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 휘두르곤 “심신미약” 주장 50대

춘천지법 “사물 변별 능력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징역 1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김유정 기자

한국정치권에서의 보수, 진보정치를 말하다

여의도 논단

박 복 희 회장
(필리핀 한인경제인총연합회)

21세기형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고 있거나, 극성스러운 특정 종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를 흔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보수라는 어언은 정치적 노선을 일컫는 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계가 있을지라도 지금 체제가 최선이고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현 체제 안에서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따지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라는 구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는 보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지형이 변화되었지만 원래 개별 유권자들의 성향으로서 존재했던 보수정치적 요인들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환경은 이런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보수적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돼왔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정치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첫 번째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4·19혁명 직후 혼란을 일소하고 국가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 규정했다. 이승만 시대가 대외 원조를 통한 전후 재건을 모색하는 단계였다면 박정희 시대는 축적된 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개발에 나서는 시기였다. 국가 주도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이나 인권의 보장 등은 경제 개발의 긴급한 필요에 밀려 상당 기간 유예되었다. 이후 군사독재 정권은 앞의 박정희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색깔을 달리했지만 적어도 어떤 효율의 달성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식의 통치 원리를 내면화 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태극기 부대'의 주력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세력은 문민정부 탄생 과정에서 밀려났다가 박근혜 정권에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야 정치적으로 복권되었다.

하지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로 따지면 앞서 서술한 형태의 '박정희주의'는 보수정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공유하는 정신적 축의 하나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은 이들의 청춘을 지배했던 박정희주의가 아직 체제적 원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처럼 간주되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세계관을 일거에 붕괴시키는 트라우마적 사건이었다. 박정희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수단을 쓰던 결과적으로 나라를 잘 운영하면 그만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을 사사롭게 사인에게 넘겨준 것이나 기업을 겁박해 공적 목적이 불분명한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체제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자신들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이 거리에 있으면서 결코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공중파 방송과 주류 언론을 모두 거부한 채 자신들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주는 유튜브 방송에 중독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권에서의 보수 진보는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진보, 좌파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 우파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수, 우파라는 단어는 안전지대에서 보호받는 것이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다.

우파는 아무데서나 '나 보수요, 우파요'라고 큰 소리를 칠 정도다. 체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큰 공감대 속에서 안도감과 상당한 정도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다.

그러나 진보, 좌파, 종북 이라는 단어는 비우호적이거나 반사회적, 반체제적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들 단어에서 주류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래서 사회에서 걱정스런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좌파는 현실 속에서 우파가 겪지 않아도 되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강요당한다.

대소 선거에서 그렇듯이 우파는 진보, 좌파, 종북을 한 데 묶어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 세 단어가 각각 차이가 있을 법하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싸잡아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북에 동조하거나 남한 체제에 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듯이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진보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식으로 짧은 문장에 담아 TV 토론에서나 유세장에서 외친다.

보수 정치인들이 종북, 좌파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세뇌된 한국 사회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계산한 결과라 하겠다.

국보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부당 이익에 눈이 먼 작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 등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북한을 연계시킨 종북 몰이 발언을 하는 것은 국보법에 의한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유권자의 최대 정치 잔치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매카시즘이 난무하는 현실은 이 사회의 후진성, 야만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낸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에서 제1여당은 보수, 제1야당은 진보로 지칭되고 있으나 그 속내를 살피면 서구의 보수, 진보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보법이 존속하는 제한된 사상의 공간 속에서 한국의 거대 정당은 보수 성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국보법의 테두리 안에 갇히고 그 독기에 중독된 형국이다.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나라가 좌파에 의해 거덜 나고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대량생산해 유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는 조선의 지배층, 친일세력, 친미세력이 변신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고 미국을 혈맹으로 여기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다.

하지만 분단 상황을 악용해 안보 우선주의를 앞세워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챙겨왔다. 보수층은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되었고 오늘날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진보는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 또는 대항적 의미를 지닌 세력으로 출발했다.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지닌 속성과 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진보는 보수의 친일, 친미 등 외세 의존적 성향에 비판적이고 북한과의 평화공존, 협력을 추구한다.

한국에서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보법이 만들어진 194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절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전후 수년 동안 한국에서의 혁신 정치, 진보 정치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 살인과 박정희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불법 살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80년대 이후 겨우 기지개를 켰지만 21세기 들어 박근혜 정권에서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는 탄압을 당했다.

한국 사회에는 진보, 보수간에 상한선 없는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국보법이 그것을 막고 있다. 국보법은 북한을 반드시 괴멸시켜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규정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잘했다거나 긍정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 사항이었고 비핵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위주의 보도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에 서구의 개념으로 보면, 보수주의는 역사적으로 진화하면서, 지속성과 안전성을 지닌 제도와 행위를 선호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태도다. 보수주의는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보다 역사적으로 계승된 것을 선호한다. 보수주의자는 변화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상주의라기보다 현실주의자다.

진보는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토론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등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신의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을 사고파는 자유, 정부 형태는 물론 자신의 지배자를 선택하는 자유, 심지어 혁명으로 그것을 교체하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니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진보의 분열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진보를 옥죄는 사회적 프레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수주의는 구체적인 전통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추상적 이론화를 시도한다. 이런 탓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나 급진주의자들의 이론적 성과에 필적할만한 이론 개발의 성과가 없다. 보수주의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진보주의 등에서 제시하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무익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서구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경쟁과 협력, 대립과 협조, 갈등과 화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장점을 취하며 자기의 단점을 버리는 식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많은 것을 차용한 것처럼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의 진보와 보수는 21세기 들어 국민투표를 통한 집권을 중시하면서 그 차이점이 많이 희석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문제, 복지정책의 경우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많이 좁혀져 있다.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 현충재 6일 인천서 개최

제21회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재

순국선열의 우국 충절을 기리는 제21회 현충재(顯忠齋)가 현충일인 오는 6일 오후 3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봉행된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와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태허스님(운암 김성숙)을 기리는 세번째 현충재로 진행된다.

김성숙 선생은 승려였던 1919년 '조선독립군 임시사무소' 명의의 격문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으로 활동했고,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돼 내무차장을 지냈다.

해방 이후 서울에서 근로인민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69년 별세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는 2003년부터 매년 현충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남인천우체국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우표전시회도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전 베이징대 중앙미술학원 부학장을 지낸 김성숙 선생의 차남이 그린 선생의 초상화로 제작한 우표도 선보인다.

/ 송원기 기자

'한글의 멋' 뽐낸 전시회 '근대한글연구소' 베이징서 개막

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한글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주중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영수)과 공동 주최로 지난 1일부터 8월 3일까지 베이징의 한국문화원에서 '근대한글연구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등 복제 유물 3건과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주제로 제작한 가구, 공예, 패션, 영상 디자인 등 작품 17건이 선을 보였다.

전시물 중에는 근대 시기 한글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화영의 '한HAN글文', 근대 출판물 한글 서체의 특색을 칠기에 담아낸 유남권의 '지태칠기(한글시리즈)' 등이 있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문화와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중국 내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와 연계해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 등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임윤희 기자

'근대한글연구소'에 전시된 이청청의 작품 '낯섦과 새로움, 그리고 연결'

"1970년대 혼수품 1호는 이것" 대전시립박물관서 재봉틀 전시회

지금의 재봉틀을 뜻하는 미싱(Maciine의 일본식 발음)의 1960년대 광고 문구다. 1960~1970년대 신부 혼수품 1위였던 재봉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에서 마련된다.

대전시립박물관은 다음 달 25일까지 올해 세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재봉틀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시되는 재봉틀 브랜드는 192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생산된 싱어, 드레스, 아이디얼이다.

싱어 테이블 재봉틀은 1923년 제작된 제품이다. 테이블 아래 페달을 밟아 얻은 동력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평소에는 테이블 아래에 뒤집어서 재봉틀을 보관하다, 상판을 열어 꺼내 고정한 뒤 사용했다. 20세기 초반 생산된 테이블 형태 재봉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1923년 제작된 싱어 재봉틀

지금은 보기 힘든 재봉틀을 보고,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채주연 기자

컬/럼

전반기 마지막, '6월을 맞이하면서'

강 진 구 회장 (화도 / 논설위원)

1년을 반으로 나누면 6월까지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통상의 개념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분주하고 아쉬움과 모든 것을 정리하는 분위기지만 6월은 한 해의 중심에 있다 보니 평범한 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떤 자세로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흔적이 남는 것이며 덧붙이자면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마음 갖기에 바쁘다 보면 상대적인 분노나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독자들은 지난 5월 무엇을 남겼으며 6월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곰곰이 명상에 젖어보길 권한다.

사람이 살면서 은둔형이 아니라면 어떤 식이든 다른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희로애락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어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생기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국내외적으로 지난 5월은 나름 다사다난했다.

늘 그랬듯이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강대국의 흐름을 배경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고 서민들의 살림은 피폐했으며 정치권은 돈봉투와 코인 논란으로 대박으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분야별 집회 시위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항상 떠들썩하게 했으며 그러는 동안 나라살림은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코로나만 지나가면 살 것 같았지만 그나마 몇 푼의 지원금도 중단되니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부모님, 스승, 부부 등 온갖 미사여구가 포함된 기념일이 있었지만 기념일일뿐 별달리 사정이 달라진 건 없었으며 이런 행사들이 6월이 호국의 달이라고 한들 호국영령들에게 인사 한번 하지 않는 현실이니 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했으면 그날만큼 이라도 챙기는 습관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며 마냥 먹고 자는 것으로 충족할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한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통찰력을 키우며 훗날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이쯤하고 계절의 여왕이라던 지난 5월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니 한몫 잡으려던 투기열풍이 잠들고 수도권조차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줄어드는 인구와 노령화는 해와 달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이미 나태하고 게을러진 국민들에게 제 아무리 좋은 일자리도 사람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어쨌거나 큰 사고 없이 지나갔고 6월은 1일 의병의 날, 3일 씨름의 날, 5일은 환경의 날, 6일 현충일, 9일 구강보건의 날, 10일 민주항쟁의 날, 14일 단오 씨름의 날,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18일 건설의 날, 21일 음악의 날, 22일 단오, 23일 공공서비스의 날, 25일 6·25전쟁일, 28일 철도의 날, 30일은 대나무 심는 죽취일이다.

물론 이런 날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성가시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했다.

사람은 나이에 맞는 고생이나 성취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연령층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니 어린이가 너무 출세를 해도 추락할 때 감당 못하는 것과 같이 나이가 들어 추한 모습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거나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이 또한 못할 짓인 것이다.

그런 고로 젊은 때는 온갖 개고생을 하더라도 모두 훌륭한 경험이며 예상치 못한 시련은 훗날 알고 보면 훌륭한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6월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부산엑스포 개최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룰 수만 있다면 개인의 치적이나 영광이 아니라 한민족의 기쁨이며 훗날 지구의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30일은 죽취일이다. 대나무가 1년에 딱 한번 술에 취하는 날이기도 한데 겉은 바르되 속은 비어있으니 선비를 비유할 때 주로 인용된다.

술 취한 대나무는 이식되어 자리를 옮겨 심어도 다시 자란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날이다.

한국만 조용하지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죽취일 행사를 벌인다.

1년 전 2022년 음력 5월 13일 전북 전주에서 공수해온 대나무 500그루를 마당과 주변에 심었는데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 노심초사, 대부분의 대나무들이 겨우내 북풍한설을 지나고 봄이 오니 파란 잎을 유지하며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한다.

마치 500명의 선비들이 도열하듯 서서 배웅하고 마중하는 듯한 착각으로 올해 5월 30일에도 더 심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리는 대나무는 보름달과 어우러질 때 5월의 밤은 더 없이 아름다운 동양화였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생애 사진전

'김대중 탄생 100주년' 생애 사진전 군산서 9~23일 개최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 장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2024년 1월 6일)을 앞두고 전북 군산시 현진갤러리에서 '100주년 생애 사진전'이 9~23일 열린다.

사진전에서는 교복 차림의 섬 소년에서 대통령 퇴임 후 일생을 마감하는 해까지 100년의 발걸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진 130여점을 소개한다.

특히 1971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의 유세를 듣기 위해 청중이 구름처럼 운집한 군산공설운동장을 비롯해 1987년 군산월명종합경기장·중앙로에 걸린 김대중 사면복권 환영 현수막, 군산시의원들과 변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1992년), 옛 군산역 광장 유세(1995년),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참석(2000년) 등 군산 관련 사진 30여점이 시선을 끈다.

동국사(평화의 소녀상)와 해망동 어시장,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을 방문했던 이희호 여사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이 기록 사진전은 '김대중 대통령 군산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한다.

조종안 '김대중 대통령 군산 기념사업회' 회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면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구현하기 위해 사진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국군 곁을 지킨 무기들'…창녕 박진전쟁기념관 특별전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박진전쟁기념관 전경

경남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2일부터 6·25 전쟁 때 국군이 사용했던 무기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를 시작했다.

국가보훈처와 전쟁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특별전시 제목은 '헌신의 도구-70년 전 그날, 국군 곁을 지킨 무기들'.

박진전쟁기념관은 M1 소총, M2 카빈소총 등 국군이 6·25 전쟁 때 사용한 무기 모형을 전시하고 사용법을 소개한다. 또 이 무기를 실제 사용한 조선경비대 최갑석 이병 등 당시 참전자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번 무료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박진전쟁기념관은 1950년 8~10월 사이 낙동강을 건너 부산을 점령하려던 북한군과 미군이 박진나루가 있던 낙동강 일대에서 벌인 박진지구 전투(창녕군 남지읍 월하리)를 기념하는 전시관이다.

2004년 문을 연 기념관은 발굴 유품, 당시 군수품, 참전용사 기증 유물, 군 장비를 상설 전시한다.

/ 강현성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조규성, 석 달 만에 득점포…K리그1 전북, 안방서 울산 2-0 제압

수원FC, '수원 더비' 잡고 리그 4연패 탈출…시즌 원정 첫 승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약 석 달 만에 터진 조규성의 득점을 앞세워 '라이벌' 울산 현대를 안방에서 잡고 상위권 도약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다.

전북은 3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산을 2-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개막전 패배(1-2)를 설욕한 전북은 최근 8경기(6승 2무)째 지지 않은 울산에 시즌 2패째를 안겼다.

안방에서 올 시즌 '1강' 울산을 상대로 승점 3을 챙긴 전북(6승 3무 7패·승점 21·19골)은 승점이 같은 대구FC(18골)를 7위로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섰다.

10위까지 처졌다가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거두며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뒤이어 열리는 8위 광주FC(승점 18·5승 3무 7패·17골)가 포항 스틸러스를 3골 차 이상으로 잡으면 전북은 다시 7위가 된다.

이날 패배로 울산은 최소 경기 승점 40 돌파 기록 수립을 놓쳤다. 이겼다면 2008 시즌 수원 삼성(16경기·승점 40) 다음으로 K리그 최소 경기 승점 40 고지를 밟을 수 있었다.

시즌 12승 2무 2패를 거둔 울산(승점 38)은 현재 승점 27을 쌓은 2위권 3팀(FC서울·제주 유나이티드·포항)에 넉넉하게 앞선 선두를 유지했다.

전반 공 점유율 39%-61%, 유효슈팅 0-4 등 각종 경기 지표에서 크게 밀리며 수세에 몰린 전북은 후반 시작과 함께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투입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울산은 전방의 좁은 지역에서도 공을 지키며 공격을 전개한 바코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고, 주도권을 좀처럼 되찾지 못한 전북은 전반보다 더 웅크려야 했다.

전북이 후반 20분 아마노 준과 문선민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편 가운데 결국 '한방'을 터뜨린 해결사는 조규성이었다.

후반 38분 아마노 준이 오른 측면에서 올린 왼발 크로스를 문전에서 정승현과의 경합을 이겨낸 조규성이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전북이 기록한 첫 번째 유효슈팅으로, 조규성이 지난 3월 5일 수원 삼성과 홈 경기 이후 석 달 만에 터뜨린 득점이다.

기세가 오른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 울산을 침몰시키는 쐐기 득점도 올렸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에 나선 송민규의 패스를 문전에서 받은 문선민이 골대 하단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2만7천97명의 관중이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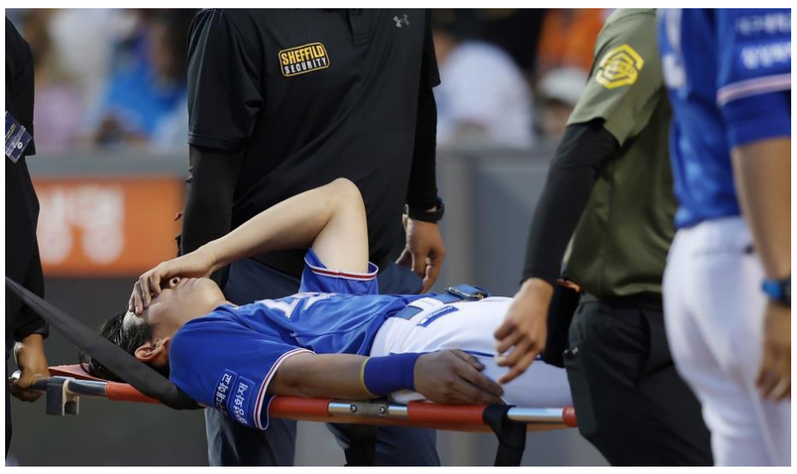
'전주성'에 2만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한 건 2019년 3월 1일 대구전(2만637명) 이후 1천556일 만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 더비'에서는 수원FC가 수원 삼성을 2-1로 잡고 최근 리그 4연패에서 벗어났다.

3월 11일(2-1)에 이어 수원 더비 2연승과 함께 이번 시즌 첫 원정 경기 승리도 챙긴 수원FC는 승점 18을 쌓았다.

수원 삼성은 리그 3연패에 빠지며 최하위(승점 8)를 벗어나지 못했다.

/ 최준용 기자



들 것에 실려나가는 구자욱

삼성 구자욱, 수비 중 햄스트링 부상…5일 정밀검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타자 구자욱(30)이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쳤다.

구자욱은 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방문경기 6-2로 앞선 8회말 수비에서 문현빈의 우측 타구를 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다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는 한참 동안 통증을 호소한 뒤 스스로 일어났지만, 걷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 나갔다.

삼성 관계자는 "햄스트링 손상이 의심된다"며 "구자욱은 5일 대구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자욱은 전날까지 올 시즌 48경기에서 타율 0.291, 3홈런, 26타점을 올렸다.

삼성은 구자욱 대신 이성규를 투입해 경기를 이어가 7-2로 이겼다.

/ 이승준 기자

우상혁, 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2m30으로 2위…우승은 해리슨

올해 두 차례 다이아몬드리그서 연속 준우승…해리슨은 2m32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2023년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회 연속 2위에 올랐다.

우상혁은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피렌체 루이지 리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0을 넘어 2m32의 주본 해리슨(24·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인 5월 6일 도하 대회에서도 해리슨이 2m32로 1위, 우상혁이 2m27로 2위를 했다.

28일 만의 재대결에서도 우상혁과 해리슨은 치열하게 싸웠다.

이날 경기는 2m10부터 시작했지만, 우상혁은 2m15에서 첫 점프를 했다.

우상혁은 2m15와 2m2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24에서는 1차 시기에서 바가 종아리에 걸렸지만, 2차 시기에서 성공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우상혁은 2m27도 1차 시기에서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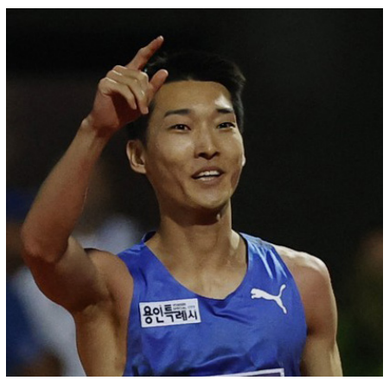
그러나 2차 시기에서 바를 넘은 뒤 유쾌한 모터사이클 세리머니를 펼쳤다. 2m27이 끝난 뒤 필드에는 우상혁, 해리슨, 루이스 사야스(27·쿠바) 3명만 남았다.

우상혁은 2m30을 1차 시기에서 넘었고, 오른 검지를 흔들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해리슨도 1차 시기에서 2m30에 성공했다. 사야스가 2m30을 넘지 못하면서 우상혁과 해리슨이 우승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쳤다. 2m32로 바를 높인 뒤 우상혁과 해리슨은 1, 2차 시기에서 모두 실패했다.

우상혁은 2차 시기에서 바를 살짝 건드린 뒤 "아쉽다"고 외쳤다. 해리슨은 2m32를 3차 시기에서 넘었고, 우상혁은 3차 시기에서도 바를 떨어뜨렸다.

우상혁은 머리 위로 손뼉을 치며 자신의 성인 "우(WOO), 우"를 외친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의 미소에는 아쉬움이 살짝 섞였다.

경기 뒤 우상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매번 대회를 나갈 때마다 이런 응원을 받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해리슨과 경쟁하는 게 재미있다. 높이뛰기가 더 재미있어졌다. 해리슨과 서로 격려하면서 재미있게 경기했다"고 말했다.



우상혁

/ 백건우 기자

성전환 선수 나화린, 강원도민체전 경륜 여성부 우승

성전환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공식 경기에 출전한 나화린(철원)이 논란 속에 우승을 차지했다.

나화린은 3일 오후 강원 양양군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여자일반1부 경륜 경기에 출전, 강릉과 춘천 대표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출발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 330m 트랙 3바퀴를 역주하며 줄곧 선두를 지켰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행여나 본인의 출전으로 1등 기회를 놓쳤을지 모를 상대 선수들을 찾아가 사과의 뜻으로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나화린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많이 긴장했는데 온 힘으로 달린 것 같아 뿌듯하고 남은 두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혹시 나의 출전으로 상대 선수들이 기권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긴장해 2시간밖에 못 잤다"고 말했다.

또 "8년 전 경기에 출전했을 때보다 여성부 기량이 높아져 예상보다 힘든 경기를 펼쳤다"며 "논란을 만들고자 출전을 결심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 자체가 다시 즐거워졌고 모든 경기에 가장 높은 곳까지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여자일반1부 스크래치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는 "인생을 건 출전을 통해 차별이 아닌 구별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남녀로 딱 잘라 정해진 출전 부문에 성소수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소희 기자

엑소 3人 "SM 이중계약 주장 허위…본질은 정산 자료 제공 거부"

SM 반박에 재반박…"앨범 최소 수량 발매 못할 시 계약 자동 연장 시켜"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한 배경에 다른 외부 세력과의 이중 계약 시도가 있었다는 SM 측의 주장에 엑소 멤버들이 "어떤 이중계약 시도도 없었다"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위 멤버들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2차 입장문에서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백현, 첸, 시우민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떤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며 "이번 정산자료 요구 등은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산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SM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건 아티스트의 알 권리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SM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온 것이 이번 해지 통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이들은 "SM과 아티스트가 기존에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SM은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아티스트는 이 자료를 30일간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료를 와서 보게만 하고 할 도리를 다했다는 SM의 주장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M이 후속 전속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맺도록 했다는 주장에도 추가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SM에서 제시한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에는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엑소 활동에 대해선 "SM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그룹 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엑소라는 팀으로 활동은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은 전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기간과 불투명한 수익 정산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에 SM은 유효하게 재계약이 체결됐고 언제든지 정산의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하며 해당 멤버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계약을 제안한 제3자의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은정 기자

영화 '범죄도시' 배우와 감독

'범죄도시 3' 누적 관객 300만 돌파 하루 만에 100만명 추가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 가 3일 오후 2시께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비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각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추가 동원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유일한 '천만 한국 영화'인 전편 '범죄도시 2'보다도 하루 짧은 나흘 만에 300만 관객을 달성했다.

'범죄도시 3'의 예매율은 3일 오후 기준 78.1%다.

예매 관객 수는 68만5천여 명에 달해 이번 주말 4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31일 개봉한 이 영화는 금천경찰서 강력반에서 서울 광역수사대로 옮긴 괴물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일본 야쿠자가 연루된 대형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동석 특유의 파괴력 있는 액션과 툭툭 던지는 코믹한 대사가 특징이다.

/ 손현수 기자

임영웅 "해외 진출 목표로 음악 스펙트럼 넓힐 것"

가수 임영웅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영웅은 2일 오후 방영된 KBS 뉴스 9에 출연해 "올해부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서 해외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팝이나 힙합과 같은 장르에도 도전할 계획이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는 "그런 느낌도 가미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영웅은 "더 많은 세대와 해외 팬과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발매한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에서 기존의 트로트 대신 세련된 록·포크 장르에 도전하기도 했다.

임영웅은 현재 첫 단독 예능 프로그램인 KBS '마이 리틀 히어로'에 출연해 친근하고 솔직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가 방송에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한 팬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웅은 3일 신곡 '모래 알갱이'를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처음 공개한다.

/ 홍지민 기자

'팬텀싱어' 네 번째 시즌 3.1%로 종영…리베란테 우승

팀 리베란테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팬텀싱어'의 네 번째 시즌이 3%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방송된 JTBC '팬텀싱어4' 시청률은 3.1%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기록이다.

최종회에서는 포르테나(이동규·오스틴 킴·서영택·김성현)·크레즐(김수인·이승민·임규형·조진호)·리베란테(김지훈·진원·노현우·정승원)의 결승 최종 무대가 펼쳐졌다.

우승팀은 결승 1차전 점수 30%,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시청자 투표 점수 10%, 생방송 도중 진행된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 60%를 합산해 결정됐다.

리베란테는 1라운드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의 '리수오나 아니마 미아'를, 2라운드에서 페르난도 바렐라의 '베리타'(Verita)를 선곡했다. 웅장하고 압도적인 4중창을 구현하며 총점 3696.78점으로 우승을 거뒀다.

리베란테의 김지훈은 "호기롭게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했지만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음악을 기대해 주는 많은 팬분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채연주 기자

고아성·장률, 사극 '춘화연애담' 출연…내년 티빙서 공개

티빙은 오리지널 시리즈 '춘화연애담'을 내년 공개하기로 확정하고 배우 고아성과 장률을 주연으로 캐스팅했다고 2일 밝혔다.

'춘화연애담'은 가상의 국가인 동방국을 배경으로 화리공주가 남편을 직접 찾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물이다.

고아성은 화리공주 역할을 맡았고, 장률은 도성 최고 거상이자 화리공주의 첫 번째 부마 후보인 최환을 연기한다.

연출은 '사랑이라 말해요'(2023) '며느라기'(2020·2022)의 이광영 감독이 맡고, 각본은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2021) '뉴 논스톱'(2000~2002)의 서은정 작가가 쓴다.

/ 정윤희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달려가는 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청년들에게 의리있는 편
청년을 위한 금융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내 편이 하나 생겼다

하나금융그룹이 당신의 편에서 하나의 힘이 될게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